



국제적인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으로의 도약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 사년 새해가 밝았다. 금년은 사회 각 분야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 원자력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게는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약진의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원자력계는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원자력안전위원회(NRC)가 위험도 기준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정리를 마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과거의 안전 기준을 재정립한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연말 개정된 원자력법에 가동중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표준 설계 인가 제도의 도입,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허가의 신설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다.

이제 2001년도를 맞이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제적인 안전 규제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첫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활동을 통해 신규 및 가동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 나갈 것이다.

위험도 기준 규제(RIR)를 위한 기술 개발과 규제 체도를 구축하고, 그 적용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규제 활동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가동년수 증가에 따른 원전 노후화 문제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안전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가동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둘째, 안전 규제 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보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원자력 안전 및 규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안전 규제성과 및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겠다.

셋째, 기관 운영을 합리화하고 효율화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기관 임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전략적 성과 관리 체계 구축 작업이 완성되면, 기관의 목표 및 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부서별 업무 내용과 성과 관리가 체계화될 것이다.

새해에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규제 기술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원자력 안전성을 평가하고 확인함으로써, 방사선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